

내년 6·2 지방선거 누가 뛰나

광주시장 강운태 재선거에도 3~4명 도전 전남지사 이낙연·주승용 2파전 벌써 후끈

내년 6·4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벌써부터 도전 후보군들이 자천타천 거론되면서 어느 때 보다 선거분위기가 빠르게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하지만, 남은 1년여 동안 '안철수 신당' 등 중앙 정치권의 움직임과 함께 지난해 대선 패배에 따른 전통적 민주당 텃밭인 호남의 '민심이반'현상 등으로 다양한 변수가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차기 후보군들은 갖가지 변수를 예의주시하면서 조심스럽게 물밑 행보를 펼치고 있다. 반면, 일부 후보는 당원과 지역주민을 폭넓게 접촉하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장

내년 광주시장 선거는 아직까지 뚜렷한 경쟁구도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일부 후보들이 자천타천 거론되고는 있지만, 민주당 5·4 전당대회 결과와 안철수 전 교수의 향후 정치 행보 등 중앙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특히 광주 민심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전국적인 이슈와 여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특성 탓에 '바람 선거'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후보군들이 조직을 조기에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 후보로는 강운태 광주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당권 도전에 나선 강기정(3선)·이용섭(재선)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장병완(재선)의원과 3선의 김동철 의원의 행보도 주목된다.

그러나 강·이 의원은 5·4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어, 현역 국회의원들의 차기 광주시장 도전 여부는 민주당 지도부 선출이 끝난 뒤 당내 역학관계에 따라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4월 재보선을 계기로 안철수 신당 등 정치권 재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3후보' 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나섰던 정용화 전 청와대 비서관의 행보도 주목된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4·11총선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서구 갑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다가 고배를 마셨다.

전남지사

내년에 치러지는 전남도지사 선거전은 광주시장 선거와 달리 벌써 뜨겁게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3선인 박준영 전남지사가 선거법상 더 이상 출마할 수 없어 차기 전남지사 자리는 사실상 '무주공산'이기 때문이다. 우선 광주일고 선후배 사이인 4선의 이낙연(합평·영광·담양·장성) 의원과 3선의 주승용(여수 울) 의원이 민주당 후보 자리를 놓고 일찌감치 경쟁구도에 들어갔다. 두 의원은 상대 진영인 동부와 서부를 넘나들며 민

심 접촉 행보를 넓혀가고 있고, 강연과 방송 출연 등은 물론 국회 상임위 활동을 적극 활용해 지역 현안 행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출마설도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고, 최근 광주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동지를 틈 천정배 전 최고위원의 행보도 관심사다. 천 전 최고위원은 최근 언론인

광주교육감 윤봉근·정희곤·박표진 등 장휘국에 도전장

전남교육감 장만채 선고 변수 속 김경택·정현석 등 입지

터뷰를 통해 도지사 선거 출마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또한, '안철수 신당' 변수가 급부상하면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의 출마 가능성도 잠재하고 있다. 다른 지역과 달리 광주·전남에서 안철수 신당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높아 이석형 전 함평군수와 김효석 전 의원이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이 전 군수는 안 전 교수가 후보로 나선 서울 노원 병 보궐선거를 누비며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 또한 안 후보와 가깝다는 이유로 신당이 틀 경우 신당의 도지사 후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광주시·전남도 교육감

진보와 보수, 장휘국과 반(反) 장휘국 전선을 형성하며 벌써부터 여론전이 뜨겁다.

먼저 장휘국 현 교육감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다. 진보를 내세우고 있는 장 교육감은 교육청 각과와 산하기관을 돌며 릴레이 교육가족 간담회를 열어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또 시민단체·종교계와 함께 하는 학부모교육을 정례화해 자연스럽게 유권자와

접촉 기회를 넓혀가고 있다. 전교조 출신인 광주시의회 윤봉근 의원과 정희곤 의원은 학력 하라·고교 강제 배정 등 장 교육감의 실정을 비판하며 반 장휘국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의장을 지낸 윤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탈당과 함께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의원은 "광주교육은 교육력을 높여야 한다는 게 대다수 학부모와 시민의 의견"이라며 "교육력을 극대화하겠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역임한 정 의원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교육청을 만들겠다"며 장 교육감의 불통을 겨냥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박표진 전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과 박인화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김왕복 조선이공대 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 전 부교육감은 내년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2월

명예퇴직 했다. 박 전 부교육감은 실력 광주 하라, 소통 부재를 놓고 장 교육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인화 교육위원장은 초등학교 교장단 회장을 역임하는 등 상당한 지지기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교육감과 교육부 자치지원국장·감사관 등을 지낸 김왕복 총장은 현 교육부 인맥이 탄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선대 총장을 지낸 양형일 전 국회의원도 차기 교육감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중도 성향으로 높은 인지도가 강점인 양 전 의원은 교육계 안팎에서 출마를 권유받고 있다.

전남도교육감 선거 후보군은 물밑에 잠복해 있다. 후보군 대부분이 다음달 9일 열릴 장만채 현 교육감의 1심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선거관이 요동칠 것으로 관측된다.

진보성향의 교육·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는 장 교육감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의 교육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장 교육감과 함께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인물은 김경택 동안인재대 총장과 신태하 전 여수교육장이다. 전남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을 지낸 정현석 전남도립대 교수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기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장	강기정 49 민주당 국회의원(3선)
	강운태 65 광주시장
	김동철 58 민주당 국회의원(3선)
	이용섭 62 민주당 국회의원(재선)
	장병완 61 민주당 국회의원(재선)
	정용화 49 전 청와대 비서관
전남지사	김효석 64 전 민주당 국회의원
	박지원 71 민주당 전 원내대표
	이낙연 61 민주당 국회의원(4선)
	이석형 55 전 함평군수
	주승용 61 민주당 국회의원(3선)
	천정배 59 민주당 전 최고위원
광주시교육감	김왕복 58 조선이공대 총장
	박인화 66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박표진 58 전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
	양형일 62 전 조선대총장
	윤봉근 66 광주시의원
	장휘국 63 광주시교육감
	정희곤 61 광주시의원
전남도교육감	김경택 65 동안인재대 총장
	신태하 67 전 여수교육장
	장만채 55 전남도교육감
	정현석 61 전남도립대 교수
■광주시초단체장	
동구청장	
	노희용 51 동구청장
	손재홍 53 광주시의원
	양해령 51 치료의사
	오형근 51 성형외과 원장
서구청장	
	김중식 65 서구청장
	김보현 48 광주시의원
	이훈문 54 광주시의원
	임유진 60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남구청장	
	강도석 59 전 광주시의원
	김만근 56 세무사
	나충현 70 광주시의회 부의장
	이철원 55 변호사
	최영호 48 남구청장
북구청장	
	문성필 47 광주시의원
	송광운 60 북구청장
	송태중 51 전 광주시의원
	조호권 53 광주시의회 의장
	진선기 49 광주시의원
광산구청장	
	민형배 52 광산구청장
	서종진 59 전 광산구 부구청장
	송경중 43 광주시의회 부의장
	송병태 75 전 광산구청장
■전남기초단체장	
목포	
	권 옥 49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고석규 57 목포대총장
	김삼열 59 목포 신외항 주식회사 대표
	김영수 58 목포시의원
	김종익 48 목포경찰서 사무총장
	김호남 64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박기철 48 진보정의당 목포지역위원장
	박홍률 59 목포 희망 21세기 대표
	배용태 58 전남도 행정부지사

이름, 나이, 현직 및 주요경력 (가나다순)	
이광래 66 국제신학 감사	
이상열 61 변호사	
홍영기 57 목포비전연구소 대표	
여수	
김동재 55 여수경찰서 공동대표	
김영규 57 여수시의원	
김충석 73 여수시장	
박종수 56 글로벌경제평화연구소 이사장	
송대수 57 전남도의원	
윤문철 65 전남도의원	
주철현 54 전 광주지검장	
순천	
기도서 51 전남도의원	
김대희 58 순천시의회 의장	
박광호 52 전 순천시의회 의장	
조충훈 60 순천시시장	
광양	
김재우 52 전남도의회 의장	
김재휴 52 전 보성군 부군수	
김종대 52 민주당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욱 58 한국폴리텍대학 순천 전임교수	
남기호 55 전 전남도의원	
윤진보 57 전남도 건설방재국장	
이서기 49 광양시의원	
이정문 58 광양시의회 의장	
정현복 53 전 광양부시장	
정인화 55 광양경제구역청 행정본부장	
나주	
신정훈 49 전 나주시장	
임성훈 54 나주시장	
이광형 59 전 나주부시장	
정순남 52 전 전남도 경제부시장	
홍석태 63 전 전남도 건설방재국장	
담양	
김영기 55 용진종합건설 회장	
신동호 55 전남대 교수	
유창중 59 전 담양부군수	
최형식 57 담양군수	
장성	
김양수 53 장성군수	
유우석 63 전 장성군수	
곡성	
배병태 62 전남도의원	
유근기 50 전남도의회 예결위원장	
정환대 52 전남도의원	
조성래 55 곡성군의원	
조형래 63 전 곡성군수	
하남석 57 곡성군수	
구례	
고택운 56 전 전남도의원	
김정섭 49 전남도의원	
박인환 63 전 전남도의회 의장	
서기동 64 구례군수	
이용봉 67 전 구례군 과장	
이창호 50 구례군의회 의원	
전경태 65 전 구례군수	
보성	
박승주 58 전 보성경찰서장	
이택우 56 전남도 생활체육회장	
임영규 55 전남도의회 부의장	
정종해 65 보성군수	
진도	
박종석 64 전 진도군 기획예산실장	
박연수 65 전 진도군수	
이동진 68 진도군수	

화순	
구충근 54 전남도립대학장	
배동기 56 전 화순부군수	
임호경 60 전 화순군수	
전형준 56 전 화순군수	
장흥	
김성 54 전 전남도의원	
이명흠 64 장흥군수	
최중석 51 전남도의원	
강진	
김진환 53 강진군수	
곽영재 65 전남도의원	
서재원 52 전 강진시의원	
차봉근 66 전 전남도의회 의장	
완도	
김신 50 전 군의원	
김인철 63 전 국회 사무처 전문위원	
김홍배 63 전 대림 사무국장	
박현호 63 전 완도부군수	
서정창 59 전남도의원	
서한기 53 변호사	
손방 56 국무총리실 부이사관	
송주호 58 전남도의회 부의장	
신우철 60 전 진도 부군수	
차용우 60 전 완도군의회 의장	
해남	
김석일 56 전 전남도의원	
김정환 62 초량대 객원교수	
박철환 56 해남군수	
이석재 68 전 전남도의원	
윤재갑 58 전 해군 소장	
영암	
김우석 59 전남도의원	
김연일 49 영암군의회 의장	
김재일 56 전 전남도 민원실장	
김일태 68 영암군수	
전동평 53 전 전남도의원	
최영일 50 전남도 민원실장	
무안	
김철주 56 무안군수	
김호산 51 황토고구마 사업단 CEO	
나상욱 62 목포·무안·신안 축협조합장	
박민호 60 전 전남도 지치지원국장	
영광	
김규현 52 영광군 변영회 회장	
나승민 64 영광군의원	
이동권 51 전남도의원	
이장석 60 전남도의원	
이종운 60 영광군의원	
정기호 58 영광군수	
정규원 47 변호사	
합평	
나병기 57 전 전남도의원	
노두근 59 전국자원봉사(聯) 전남본부총재	
이윤성 59 이이클럽총동조합 객원연구원	
인병호 65 함평군수	
신안	
강성종 65 전 전남도의원	
고길호 68 전 신안군수	
남상창 60 전 진도 부군수	
박우영 58 신안군수	
임흥민 52 전남도의원	
고흥	
김학영 61 전 고흥경찰서장	
박병준 60 고흥군수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영원한 행복멜로디가 울립니다.

편안한 예, 적금,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다양한 보장 보험, 빠르고 쉬운 대출 희망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금

적금

보험

대출

